

## ‘5·18 폼페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 확산

李대통령 “저질 장사치 막장 행태 분노”  
민형배 “민주주의 역사 향한 도발·폭거”  
정용진 신세계 회장 “대국민 사과” 불구  
씨늘한 여론...온라인서 ‘불매·탈벽운동’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46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역사적인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맞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 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적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비판을 쏟아내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사건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데 이어,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며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하는 텀블러 프로모션 중 5월18일을 ‘탱크데이’라고 명명하며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5·18 당시 무력 진압의 상징이었던 탱크를 5·18 기념일 당일에 사용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책상에 탁’ 역시 군사정권 아래에서 박종철 열사 사망을 왜곡해 발표했던 경찰의 표현과 유사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파문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텀블러데이’와 ‘작업 중 탁’으로 문구를 변경해 진화에 나섰다. 이마저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일을 앞두고 극우 커뮤니티에서나 사용하는 조

롱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스타벅스는 행사를 전면 중단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실제 이날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머그잔을 망치로 깨부수는 영상이나 휴지통에 버리는 사진 등 ‘불매운동’을 인증하는 게시물과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불매운동을 넘어 스타벅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의 ‘탈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 확산하고 있다.

오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박한 역사 인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광주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측도 19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향한 도발이자 폭거”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 후보 측은 “꼬리 자르기식 인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과거 ‘멸공 논란’을 일으켰던 정용진 회장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그룹 전체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의도적 도발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후보 측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자유와 인권, 평화를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민주시민들은 역사를 상업적 마케팅 도구로 능멸하는 기업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폄하하고, 광주 시민의 아픔을 자극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등과 연대해 역사 왜곡 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역시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한 스타벅스는 광주 시민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덮으려 한다면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한 돈벌이 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재정·안재영 기자



손 맞잡은 韓日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한·일 양국 공급망 협력 더욱 확대”

日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서틀외교’ 신뢰 국제정세 공동 대응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

한·중·일 존중 공통이익 모색도 강조

“싸울 필요 없는 한반도 평화”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4면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 (양 정상)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으로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오늘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서틀외교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하심타회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고 저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회담에서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고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 Today

D-14 6·3地選 격전지-〈4〉여수시장 3면

소리로 이어온 40년, ‘적벽가’로 만나다 14면

막강태이블 세터, 해결사 역할도 ‘척척’ 16면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




